

이 자료는 2025년 1월 8일 부터	<h1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h1>	담당과	기업지원팀
		담당자	대리 이동규
		전화번호	031)501-5700
본 보도자료는 시흥상공회의소 인터넷(http://shiheungcci.korcham.net)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25년 신년인사회 성료

시흥상공회의소(회장 성낙헌)는 을사(乙巳)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7일(화) 11시에 시흥비즈니스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능소화 꿈나무 파란 마음 합창단과 시흥시립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조정식 국회의원, 지역 상공인을 비롯하여 금융기관장, 경제·사회단체장 포함 350여 명이 참석하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시흥시의 힘찬 도약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낙헌 시흥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에서 대내외의 여건 악화로 인한 복합적인 위기가 기업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은행과 KDI, 한국개발 연구원 등 경제연구소가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1.9%로 경기 둔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국내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투자와 수출 등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자재 수급 안정과 국내 기업들의 신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난 한 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안전 컨설팅과 실무 및 순회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였으며,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행정, 노동, 세무, 환경,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유관기관에 건의하고 상공인의 현장애로를 적극 대변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 모든 결과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상공회의소 의원님들의 협조와 상공인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새해에도 상공회의소는 상공인들이 하나가 되는 각종 네트워크 활동과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현안들을 발굴하고 개선 활동에 집중하여 상공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축사에서 상공회의소 역대 회장단과 시흥시 관내 기관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작년 한 해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새해에는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민생과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작년에는 가뜰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한파와 폭설, 정치적 상황, 그리고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등으로 여러 가지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새해에는 트럼프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실현될 것이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어려운 국면에 처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힘이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비상 민생경제회의를 통해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세 가지 원칙(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을 통해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여러 주체가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하는 대안을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며, 과감하게 관례를 타파하여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기업인들에게는 판로 개척이나 금융 지원을 위한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48시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위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흥시가 선장된 바이오특화산업단지가 제대로 역할을 하여 시흥시와 더 나아가 경기도에 새로운 발전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 힘 내시고 희망의 한 해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며 축사를 마쳤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의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두 가지 각오를 전달하였다.

1년 전에도 똑같은 각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시화호 30주년 ‘죽음의 호수’에서 ‘기적의 호수’가 되어서 시화호 일대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하는 데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정부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되었다며, 우리 시흥이 송도와 견줄만한 바이오 미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작년에 12월에 서울대병원 우선 착공 관련 계약에 성공하여 올해는 반드시 착공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좋은 기업들이 시흥바이오 단지에 자리 잡고, 시화 반월 지역의 전통 제조업과 바이오 관련 새로운 사업이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계신 분들 덕분에 용기를 얻는다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위기극복을 잘 하는 민족이 없다며 이 위기도 잘 극복할 것이라 믿고 있고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인사를 마쳤다.

오인열 시흥시의회의 의장은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은 가뜩이나 힘든 우리 상공인들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상황들이 하루속히 해소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날을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하였다.

2025년은 푸른뱀의 해이며 푸른뱀은 성장과 발전의 기운을 갖는데, 시흥시 상공인분들께서는 올 한해 푸른뱀의 기운으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만드시기를 힘껏 응원하겠다 말하며, 끊임 없는 변화와 혁신, 단합된 힘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성공을 이루어 내 실거라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시흥시의회의 16명의 의원 모두 여러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2025년 시흥상공회의소의 신년회를 축하한다고 말하며 항상 새롭게 희망찬 새 해를 열어가는 첫 행사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해주고 계시다며 뜻깊은 행사를 열어주신 역대 시흥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의원 분들, 시흥시 상공인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다사다난했던 작년의 상황에 대해 말하며 국가적 혼란 상황으로 인해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올해는 경제 안정과 회복에 반드시 총력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경제 여건이 굉장히 녹록치 않다고 언급하며, 환율과 주가가 좋지 않고 한 달 사이에 환율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정부에서도 1%대로 하향조정하였고 대내외적 환경들이 많이 걱정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힘을 합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단한 저력이 있는 민족이라고 말하였다.

올 한 해를 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기회로 만드는 2025년 한해가 되었음 한다고 다시한번 말하며 국회의 최다선 의원인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시흥지역 경제와 국가의 안정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였다.

시흥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견도시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고 시흥시는 작년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인천시와 국가첨단 전략 산업단지로서 함께 선정되었고 이는 정말 대단한 일이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하며, 서울대병원 착공과 같은 호재가 계속 만들어지고 시흥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올 한해 기업인들이 힘 내시길 바란다고 축사를 마쳤다.

끝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떡국으로 오찬을 함께 하며 신년인사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시흥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는 시흥시에서 개최되는 신년인사회 중에서 가장 성대한 행사로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끝.

